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노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경:시편 37편 1-11절
(Tag:어버이주일,어버이날,노년,행복,건강,)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37:1-11)

어버이주일을 맞아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주일은 원래 어머니날이었다. 그런데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다.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풍습인데,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앤 자비스라는 여인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날 봉사클럽’을 만들었다. 전쟁으로 서로 싸우지만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였다.

1905년 앤 자비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훗날 1908년 그녀의 딸 애나 자비스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며 주일에 교회에서 하얀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 유래가 되었다.

카네이션은 사랑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한다.

아버이날의 중심 정신은 사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주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효도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서 아버이의 노고를 잊지 말자는 뜻이 더 강하게 되었다.

누구가 되었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도움을 베풀자는 취지를 오늘에 되살려야 할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자, 가까이 있는 교인들을 둘러보자. 나의 배려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어린이든, 노인이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람들이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배려해서 그를 도우면 훨씬 유익한 사람들이 있다. 베풀 수 있는 관심과 배려에 더욱 힘쓰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다.

건강한 사회란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점차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커지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감사할 일이다.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다.

50대 사람들은 귀농과 귀촌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 교회적으로도 적당한 시골 마을을 거점화 해서 일정기간 휴식도 취하며 전원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사람들은 악해져 가지만, 세상은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호의적이다. 우리가 전원을 가꾸는 것을 상상해 보자. 얼마든지 방치될 수 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거기에 미치면 그곳은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가 된다. 그리고 그걸 가꾸는 사람은 건강하게 된다.

그곳을 가정과 일터라고 생각해 보자. 악한 사람들에게 이리 저리 끌려 다닐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선행으로 세상을 가꿀 것인가? 소극적으로 나만이라도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위로를 삼을 것인가? 룯처럼 점점 조여오는 악의 기운 때문에 그 의가 상해버리고 말 것인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적극적인 선행으로 세상을 가꾸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는 빛과 소금이다.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손해를 보게 되는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할 것이다. 물이 새면 빨리 새는 곳을 막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한번 새고 마는 물은 없다. 완벽하게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물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샌다. 테프론으로 쉽게 누수를 막을 수 있지만, 없다면 가서 구해와야 한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은 악에게 밀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악한 자들을 시기한다는 것은 차마 악을 행하지는 못하나 악한 자들에게 굴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악은 실존하며, 나에게도 유감없이 그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겸

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조심 조심, 촉각을 곤두세우며 해악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한다.

-어느때 해악이 나에게 이르는가? 도적같이 임하는데 주로 나태하거나 욕심이 작용하거나 교만하거나 피를 부릴 때 나의 영적 감각은 무디어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박식하고, 유능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쉽게 무너진다.

-그래도 악한 자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고 틈을 노리고 나를 괴롭힌다. 조치가 미흡하면 언제든 다시 나를 괴롭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악에 대항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악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3 여호와의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의 의뢰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한다. 악한 자에게 보복하거나, 똑같이 악하게 대해 주거나, 편법을 사용하거나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거나 하면 곤란하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좋으련만,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복잡해져서 법 절차도 쉽지 않다. 나쁜 경찰들도 있다. 선을 행하기가 식은 죽먹기는 아니다.

-악을 행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차라리 선을 행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쉬우니 선과 악의 싸움에서는 선의 더 유리하다.

-땅에 머무는 동안 만큼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실은 법을 지키는 성실, 죄인에게 관용하는 성실, 오래 참아주는 성실, 적극적으로 악에게 대항하고 선을 행하는 열심 등을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밥 먹듯 하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뜻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선을 행하다가, 악에게 대항하다가 뜻밖의 도움과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뜻밖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도 있다. 이때는 여호와께 맡기라.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선을 행하되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